

눈미[臥山里] 웃당¹⁾ 불도삼승또(佛道産神—).

옥황상제(玉皇上帝) 말жат똥[末女]아기 부모의 말씀에 눈을 트니²⁾,

“인간에 귀양정배 보내라.”

귀양정배(定配) 보내니, 노각성즈부줄로³⁾ 와산(臥山) 당오름⁴⁾ 상상봉오지[上上峯]에 내려왔는
디, 그때 와산(臥山)인간 하나이 즈식(子息)이 었어서, 스십(四十)이 뉘도록 즈식이 었어 문즘(問
占)을 하니 ‘뜯굼에 웃이⁵⁾ 솟아난 큰 돌을 워하라’ 험난, 그 부인(夫人)이,

“어딜 가민 큰 돌이 시코?”⁶⁾

“당오름 상곡지[上頂]에 난디웃인⁷⁾ 큰 돌이 싯젠 허여라.”⁸⁾

그 돌을 좇안 제(祭)를 지난 후 포테(胞胎)가 되여 날 돌이 당오름으로 제(祭)를 지네레⁹⁾ 당오름
을 오르젠¹⁰⁾ 하니, 당오름 중허리엘 가니 종애[脚]가 무거와서 올라갈 수 었어, 그디 쉬여듬서¹¹⁾
험는 말이,

“저 우희¹²⁾ 이신¹³⁾ 조상(祖上)님이 영급(靈及)이 싯건¹⁴⁾ 요만이나¹⁵⁾ 오랑그네¹⁶⁾ 좌정허여시민
우리 즈손덜토 험썰¹⁷⁾ 덜 못즌덜 일¹⁸⁾ 아니우파?”¹⁹⁾

험며 축수(祝手)를 험고, 질 문침²⁰⁾ 지나난 디 간 제(祭)를 지나두고 내려오란,²¹⁾ 헤산(解産)
열려 생남(生男)을 보니, 지꺼진 짐에²²⁾ 치새(致謝)로 또 출려아전²³⁾ 제(祭)를 지네레 가단 보
난²⁴⁾ 문쳐²⁵⁾ 가단 쉬명²⁶⁾ 축수(祝手)허여 난디²⁷⁾ 미력상돌[彌勒像石]이 내려오란 좌기허여시
니,²⁸⁾ 그디서 제를 지난 후엔 축사(祝辭)를 올리뉘,

“좌정흙 들로²⁹⁾ 좌정(坐定)험민 일만즈손(一萬子孫)덜이 조상(祖上)으로 워헤야 우망적선(爲望

1) 웃당 : 당명(堂名). 위쪽에 있는 당.

2) 눈을 트니 : 뜨니. ‘눈을 텃다’함은 부모말씀에 거역 반항했다는 뜻.

3) 노각성즈부줄 : 미상. 신이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인 줄인 듯함.

4) 당오름 : 악명(岳名).

5) 뜯굼에 웃이 : 예측없이. 우연히.

6) 시코 : 있을까.

7) 난 디 웃인 : 난 데 었는.

8) 싯젠 허여라 : 있다고 하더라.

9) 지네레 : 지내러.

10) 오르젠 : 오르려고.

11) 쉬여듬서 : 쉬면서. 쉬고 있으면서. 쉬고 있는 채로.

12) 우희 : 위에.

13) 이신 : 었는.

14) 싯건 : 었거든.

15) 요만이나 : 요만쯤에나. 이만큼에나.

16) 오랑그네 : 와서.

17) 험썰 : 조금.

18) 못즌덜 일 : 못견덜 일.

19) 아니우파 : 아닙니까.

20) 질 문침 : 제일 먼저.

21) 내려오란 : 내려와서.

22) 지꺼진 짐에 : 기쁜 김에.

23) 출려아전 : 차려서. 차려 가지고.

24) 가단 보난 : 가다가 보니.

25) 문쳐 : 먼저.

26) 쉬명 : 쉬면서.

27) 허여 난디 : 했던 데.

28) 좌기허여시니 : 좌기(坐起)하여 었으니.

積善)을 하겠수다.”

뒷날[翌日]은 또 제차(再次) 간 보니 고장남밭³⁰⁾ 만년(萬年) 폭낭³¹⁾ 알[下]로 좌정하여,

“삼월 열사을날[十三日] 본명대제일로³²⁾ 자손에 선천미명을³³⁾ 받으면 자식(子息) 엇인 자손(子孫)엔 인간 탄생(誕生) 시기꼭 자손 그늘라 주마.”³⁴⁾

영허여³⁵⁾ 위하는 조상(祖上)입네다.

- 朝天面 咸德里 男巫 高明先 口誦

와산리 윗당의 당신은 불도삼승또입니다. 옥황상제 막내딸아기가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니,

“인간에 귀양정배 보내라.”

귀양정배를 보내니, 딸아기는 노각성자부줄로 와산 당오름 꼭대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와산에 사는 어떤 사람 하나가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점을 치니 ‘홀연히 솟아난 큰 돌을 위하라.’ 하므로, 그 부인이,

“어딜 가면 큰 돌이 있을까?”

하고 찾더니,

“당오름 꼭대기에 난 데 없는 큰 돌이 있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인은 그 돌을 찾아 제사를 지낸 후 포태가 됩니다. 해산달이 되니 부인은 다시 제사를 지내러 당오름을 올라가는데, 당오름 중허리에 가니 다리가 무거워서 올라갈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앉아 쉬면서 하는 말이,

“저 위에 계신 조상님이 영급이 있거든 요만큼에 와서 좌정하였으면 우리 자손들도 조금 덜 괴로울 것 아닙니까?”

하며 축수를 하고, 제일 먼저 지냈던 데 가서 제를 지내두고 내려와서 해산을 하니 생남을 합니다. 기쁜 김에 치사하러 또 제물을 차려서 제를 지내러 갑니다. 가다 보니 산 중턱의 먼저 가다가 쉬면서 축수하였던 곳에 미륵상돌이 내려와 좌정하여 있으니, 거기서 제를 지낸 후에는 다시 축사를 올리되,

“좌정할 데로 좌정하면 일만자손들이 조상으로 위하여 적선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날은 또 재차 가 보니 고장남밭 만년 팽나무 아래로 좌정하여 있습니다. 그로부터 삼월 열사을 날 본명대제일로 자손에게서 제의를 받으면 자식 없는 자손에게는 인간 탄생을 시켜주고 자손을 돕고 키워준다고 하여 위하는 조상입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312-315.

29) 들로 : 데로.

30) 고장남밭 : 와산리(臥山里)의 지명.

31) 폭낭 : 팽나무.

32) 본명대제일 : 본명대제일(本命大祭日).

33) 선천미명 : 제의(祭儀)·축원(祝願)의 뜻으로 씀. ‘서천제민 공연’.

34) 그늘라 주마 : 도와 키워 주마.

35) 영허여 : 이리하여.